

이명박 대통령 당선

내년 총선 광주·전남 대폭 물갈이 예고

4년 끌어 온 우리·민주 반목 큰 실망 '탄핵역풍' 금배지들 정치력 부재 노출 유권자들 실력 갖춘 참신한 인물 갈증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된 가운데 내년 4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은 광주·전남 정치권의 대규모 물갈이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양분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이후 분열과 반목을 거듭한 데다 별다른 정치적 비전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서 지역 정치권은 내년 18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의 민심이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선 패배 여파로 '호남 위기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대권을 장악한 한나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당 견제론'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의 민심은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쏠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별다른

정치적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반면 내년 18대 총선에서 약진과 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정국에서 범여권 대선 후보의 대통합을 원하는 지역 민심을 사실상 외면,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도 최ingi 의원(나주·화순) 단 1명에 불과한 데다 지도부에 포진한 인사들도 과거 인물에 대부분이어서 호남 정치의 미래를 견인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중론이다.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하듯 민주당은 대선과 함께 치른 장성, 해남, 장흥군수 등 3곳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곳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 반면 대통합신당은 해남, 장흥군수와 광주지역 광역의원 두 군데 선거에서 승리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오리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힘입어 국회에 진출했던 열린우리당 출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별 다른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재선 이상의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은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개혁적 구호만 내세웠던 일부 초선 의원들은 '참여 정부 아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광주·전

남지역 각 지역구에는 전·현직 장관 등 명망가들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활발한 물밑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에 강력한 정치적 리더가 없고 대선 패배 이후 집단지도체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국 '계파별 나눠먹기식 공천'과 전략공천 등이 횡행하면서 '공천 물갈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치력과 미래 비전을 겸비한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할 가능성

과 함께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민심은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50% 이상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합민주신당의 활로는 새로운 비전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인적 물갈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 혐오·무관심...사상 최저 투표율 초래

광주·전남 하락 폭 전국 최고

제17대 대선 투표율이 직접선거로 치러진 11차례의 대선 가운데 가장 낮은 60% 초반대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범여권의 '정치적 메카'인 광주·전남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 지난 두 번의 대선에 비해 시들해진 지역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투표율 마감한 결과, 총 유권자 3천765만3천518명 중 2천368만3천684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62.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의 투표율 70.8%보다 7.9%포인트 떨어졌고, 97년 제15대 대선 80.7%에 비해 무려 17.8%나 하락한 것이다.

역대 대선에서 최고 투표율은 지난 60년 제4대 대선 때 97%였고, 최저투표율은 2002년 16대 때 70.8%였다. 최근 이어진 두 번의 대선에서 연거푸 최저치 투표율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직접투표가 부활된 이후 대선 투표율은 87년 13대 대선 때 89.2%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이후 92년 14대 81.9%, 97년 15대 80.7%, 2002년 16대 70.8%로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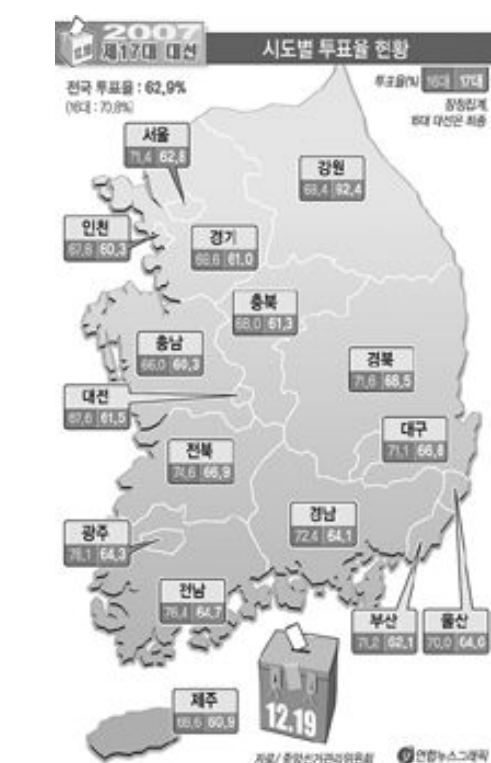
16개 시·도 모두 투표율이 떨어진 가운데 지역별 투표율 편차도 두드러졌다. 범여권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광주와 전남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는 16대 대선 때 78.1%에서 이번에는 64.3%로 13.8%포인트, 전남은 76.4%에서 64.7%로 11.7% 하락했다.

광주·전남 시·군·구별로는 군수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 장흥(74.7%), 장성(74.4%)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목포가 58.2%로 가장 낮았다.

광주와 전남은 2002년 제16대 대선과 97년 제15대 대선에서 나란히 전국 1, 2위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경북과 대구와 그 자리를 내줬다.

한나라당의 아성이자 이명박 후보의 출신지인 대구는 41%포인트, 경북은 3.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쳐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부산은 9.3%포인트, 경남은 8.3%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아진데 대해 전문가들은 일찌감



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이 형성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점을 공통 요인으로 꼽고 있다. 선거가 박빙 승부로 진행돼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데 이번 대선은 이명박 후보가 꾸준히 40%대 득주체제를 이어오면서 2위 후보와 격차를 유지한 게 투표율 저하로 귀결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선거전에는 BBK 주가 조작 의혹사건 등을 놓고 각 후보간 물고 물리는 네거티브전 양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증을 키운 부분도 낮은 투표율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한 살 낮췄지만 정작 젊은층의 투표 참여도가 낮아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또한 "대형 정책공약 이슈가 부재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명박 당선자 부부 투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투표소에서 부인 김윤옥씨와 함께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대통령, 연말 특별사면 검토

노무현 대통령이 올 연말 재임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에서는 최근 김우중 전 대구고법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말 사면'을 실무단에서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확되는 대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며 성탄절 특사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연말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로 지난 16대 대선에 끝난 2002년 12월 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연말 사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의 연말 사면설과 관련,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화갑, 박지원, 이정일 전 의원 등은 연말 사면이 이뤄진다면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선거법 위반 줄고 고발건은 늘어

17대 대선과 관련 광주·전남지역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가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건은 16대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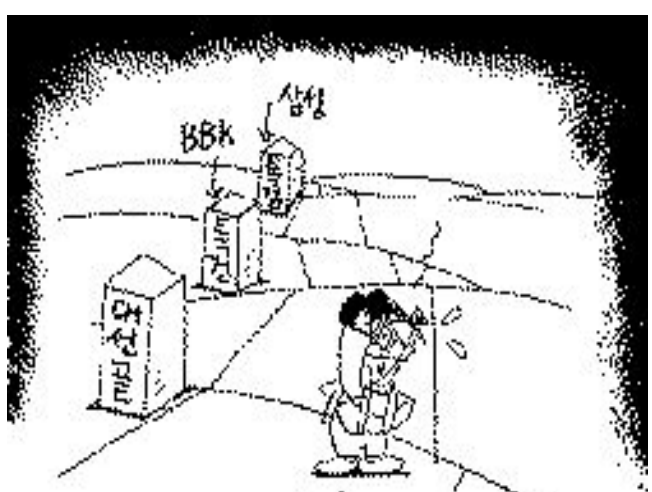
19일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는 68건

으로 지난 16대 대선의 106건에 비해 35.8% 줄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24건으로 16대에 비해 15건, 전남은 44건으로 23건이 각각 줄어 들었다.

이처럼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과열·혼탁양상으로 선관위가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눈에 띄게 늘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더 심란하게 기다리고 있구나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
사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 617-01-108334
*예금주(주) 광주일보사

분실
골프회원증
No. J01120131
광주C.C
금호타이어(주) 전대진
삼기 회원증(大小)을 분실
공고함.

합격을 전국 1위 = 오전반 야간반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개강 1월 2일
현대적 학습시설 과학적 평가 시스템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236-2467
전남여고 건너편

시옥 이전 안내(안)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신사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객님을 보시겠습니다.
이전일: 2007. 12. 20(목)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2 (상무지구 이마트와 KBS 사이)
대표전화: (062) 360-3100
약도
2007년 12월 20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산행안내
12월 22일(토)
▲나시모산악회 경남 남해 탐산 12월22일(토) 05시30분 영주체육공원 주여분애회관편의점출발 http://cafe.daum.net/awansano
12월 23일(일)
▲삼각산악회 코룡 마복산 (군곡산 지역회) 12월23일(일) 08시 두암동 88호나시산악회주재분애회관출발
광주지역출발 T.019-383-3108
▲광주산악회 경남 사천 외방산 12월23일(일) 08시 분애회관후는출발 T.011-644-8260
▲한울산악회 승전 주계산 12월23일(일) 08시 국제호텔건너편광주문명(문예회관문명출발) 분애회백계-관음산악회(매곡,부림가인) T.011 635 9329

▲대한산악연맹광주광역시지회 12월23일(일) 05시30분 한나라이비트주재체육관내내주자장성출발 T.010-9445-9684
▲광주자연보호연맹 12월23일(일) 08시 구동경치정출발 http://cafe.daum.net/GAYNSAN T.011-666-3291
▲광주한길산악회 소매동도 등대산 12월23일(일) 07시30분 경주여출발 http://cafe.daum.net/gihangju T.222-3253, 010-7619-0559
▲광주일코스산악회 경남 거창 비내봉(거주출발) 12월23일(일) 08시 대인광성(남출발)출발 T.267-5307, 010-4616-1460
▲광주메이리산악회 거창 유두산(분류산) 12월23일(일) 08시 사차분애회관후는경주출발 http://cafe.daum.net/nksw T.011-601-2891
▲요진회 양천 대안산 12월23일(일) 07시30분 경주여출발 T.016-611-1599
▲비두리산악회 전남 해운 노후산 승녀산행(구신제곡) 12월23일(일) 08시 광주여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640-0871
▲산악회명장부원출발 12월23일(일) 08시 광주여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619-7609, 010-7677-3253
▲광주산악회 전남 남광산 12월23일(일) 08시 대인광성(남출발)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619-7609, 011-8618-3357
▲울진산악회 연수 경치 12월23일(일) 08시 광주여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618-7627, 011-605-5034
12월 24일(월)
▲광주명문산악회 전남 영광 분길산 12월24일(월) 08시 광주여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 632 7676, 011 633 9289
12월 25일(화)
▲영주산악회 경남 원성분, 구지분 12월25일(화) 08시 영주체육관내애회관후는경주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608-2208
12월 31일(월)
▲발성산악회 경주 보현산 서남악회출발 12월31일(월) 22시 광주여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606-3477
▲광주철도산악회 광주여(경동)전역 신년 해돋이여행 12월31일(월) 19시 광주여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9214-8811, 010-5149-9309
08년 1월 12일(토)
▲광주정음산악회 제주 한라산 1박2일(토) 1월12일(토) 06시 원대원(광주여출발)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608-4267, 011-608-4267
08년 1월 19일(토)
▲광주정음산악회 제주도 안라산 1박2일(토) 1월19일(토) 07시 원대원(광주여출발)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비내봉)출발 T.011-9214-8811, 010-5149-9309
08년 1월 26일(토)
▲광주도요산악회 한라산등반과 우도1박2일(토) 1월26일(토) 07시 광주여(등애회관후는경주)출발 http://cafe.daum.net/awansano T.011 608 4267, 011 634-2044